iM증권

Issue Comment

Overweight

2026.03.26

제약/바이오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략적 투자 시사점

국내 첫 투자를 바이오로 선택한 한국투자공사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로 진행했던 한국투자공사는 23일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R&D 투자 플랫폼에 1.5억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KIC는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 리스크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바이오 기업과 아시아 최대 헬스케어 전문 운용사인 CBC 그룹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내 신약 후보물질이 상업화 단계까지 무사히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협력대상인 CBC의 투자 스타일 살펴보기

KIC가 파트너로 낙점한 CBC그룹은 아시아를 기반으로 14조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다. KIC가 1.5억달러를 출자하고 CBC그룹이 공동 운용 및 네트워크 연계를 담당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CBC그룹은 Investor-Operator 모델을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해당 모델은 기업 경영과 R&D, 글로벌 상업화 과정에 관여해 기업의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다.

휴젤의 사례를 통해 CBC그룹은 이미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력이 있다. 2021년 8월 CBC그룹이 주도한 아프로디테 컨소시엄이 휴젤 지분 약 47%를 1.7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4월 경영권 인수가 완료됐다. 이후 글로벌 시장 공략과 브랜드 강화를 추구했고 2024년 휴젤의 보톨리눔톡신 레티보가 FDA의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영권 인수 외에도 회사를 직접 설립해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2017년 CBC그룹이 설립한 에베레스트 메디슨은 해외 유망 파이프라인을 도입해 아시아에서 상업화하는 라이선스인 모델을 추구했다. 2019년 길리어드로부터 트로델비의 아시아 권리를 8.4억달러에 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권리를 반환하며 주가가 크게 폭락했다. 이후 종양학 부문 정리, 상업화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도입해 네페콘 등의 3개의 상업화 제품을 기반으로 한 외형 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

바이오 R&D 투자 플랫폼의 최우선 타겟은 글로벌 진출 의지가 확고하면서, 기술력은 입증되었으나 초기 임상 자금과 네트워킹이 절실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래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에이비엘바이오: 위암 타겟 후보물질 ABL111은 CBC그룹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아이맵(I-Mab, 현재 노바브릿지 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 변경)과 공동 개발 중이다. 올해 1월 노바브릿지는 ABL111의 1b상 임상에서 8mg/kg에서는 77%(20/26)의 ORR을, 12mg/kg에서는 73%(19/26)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2026년 ABL111 임상 1b상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관점에서는 ABL111에 대한 글로벌 가속 승인을 위한 임상 비용 및 동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플랫폼 그랩바디-B 기반의 치료제에 대한 해외 임상 관련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다. 사노피 등과 진행했던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사례 등을 통해 동사가 가진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된 상황으로 판단한다.

[제약/바이오]
정재원
2122-9208
jaewon.jeong@imfnsec.com

2) 리가켐바이오: 동사에게 2026년은 파트너사들과 진행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적 모멘텀들이 확인되는 시점이다. HER2 ADC인 LCB14는 글로벌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며 작년 ESMO를 통해 1a상 중간 결과로 ORR 64%(7/11)를 기록했다. 또한 엔허투 내성 환자 대상으로는 ORR 75%(3/4)를 기록해 향후 엔허투 내성 이슈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ROR-1 ADC 후보물질인 LCB71은 올해 6월 예정된 ASCO를 통해 진행 중인 임상 1b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발표한 데이터를 통해 경쟁 파이프라인 대비 우위를 보여줬다는 점을 주목한다.

동사는 오리온의 지분 투자를 통해 자금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CBC그룹이 강점으로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을 활용해 기술 수출 계약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에이프릴바이오: 동사는 약물의 반감기를 늘려주는 SAFA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덴마크의 룬드벡, 미국 에보뮨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기술력은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핵심 파이프라인 APB-A1은 올해 중순 임상 1b상 최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APB-R3은 아토피 피부염 임상 2a상 탑라인 데이터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적응증 확장 등 향후 파이프라인들의 추가적인 임상을 통한 인체에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하는 상황이기에 CBC 그룹이 가진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4) 그 외에도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판단되나 초기 임상 단계에 핵심 에셋이 있는 기업 리스트로는 알지노믹스, 오름테라퓨틱 제시

전략적 투자가 이끌어낼 산업의 구조적 변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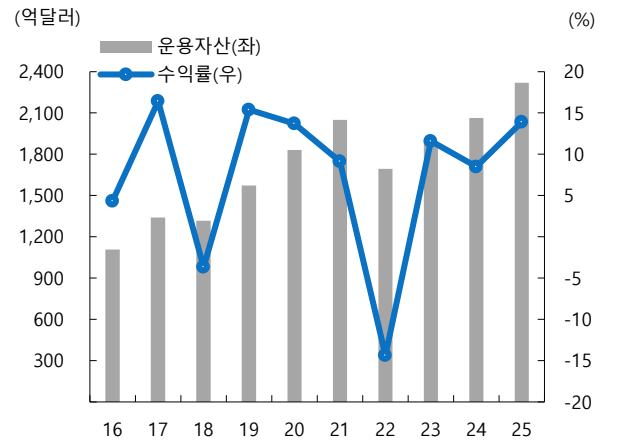
이번 KIC의 전략적 투자 사례를 시작으로 국내 업종의 구조적 변화까지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지닌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부펀드의 장기 자본을 통한 바이오 경쟁력 강화는 적합한 접근이다.

국내 다수의 바이오텍들이 겪고 있는 자금적 이슈로부터 부담감이 낮아진다면 향후 임상 최종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수익을 온전히 누리는 FIBCO(Fully Integrated Bio-Pharmaceutical Company) 모델 기반의 국내 바이오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FIBCO의 가장 좋은 예시는 리제네론이다. 리제네론은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7위 기업으로 독보적인 항체 플랫폼 기술을 내세운 수익 배분 방식의 전략적 공동 개발 전략으로 1988년 설립 이후 약 20년을 버텼고, 2008년 자체 제품 아칼리스트 출시를 기점으로 FIBCO 모델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냈다.

또한 CBC 그룹은 R-Bridge 펀드를 운용 중이다. 해당 펀드는 승인된 의약품이나 상업화 단계의 로열티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희석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발생하는 주주 가치 희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재무 구조의 정립도 이번 KIC-CBC 협력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다.

상기 언급한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성공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투자들이 활발히 일어나야하며, 그렇기에 어느정도 검증받은 에셋을 가진 국내 바이오 기업 기반의 성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된 바는 없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하나 상기 언급한 기업들의 주요 파이프라인에서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투자부터 상업화까지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림1.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 및 수익률 현황



자료: 한국투자공사,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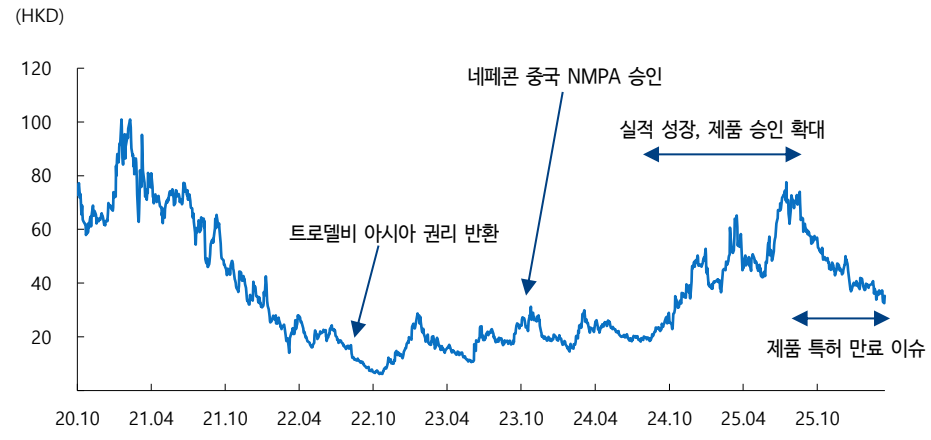
그림2. CBC 그룹 주요 투자 요약. 아시아권에 속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발히 진행

자료: CBC그룹,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휴젤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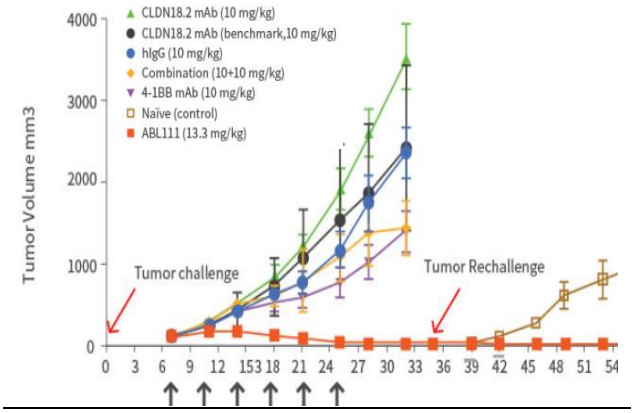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에베레스트 메디슨(1952.HK)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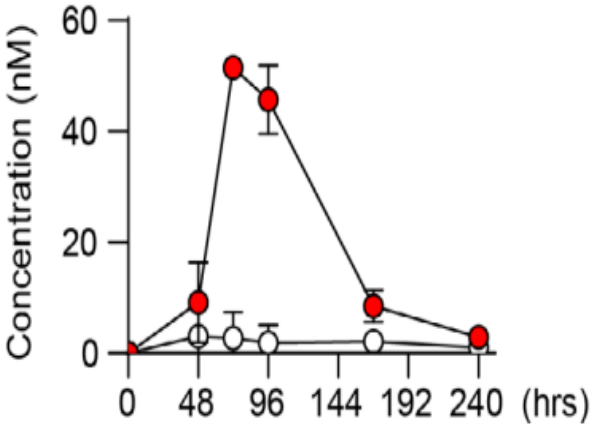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ABL111의 항암 효과 데이터. 현재 ABL111은 임상 1상 중으로, 올해 1b상 전체 데이터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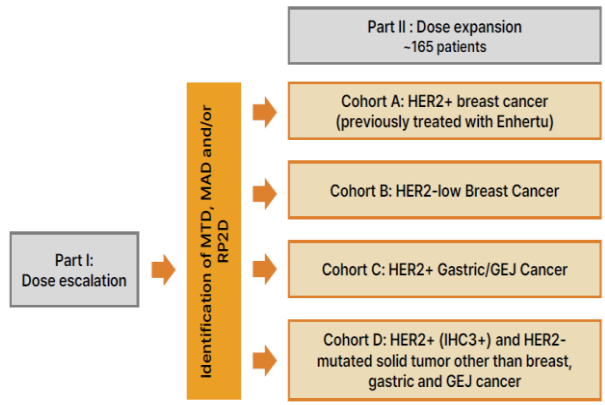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그랩바디-B 플랫폼을 적용한 ABL301(SAR446159)의 전임상 연구 결과 중 뇌 내부의 약물 농도 비교 데이터. BBB 투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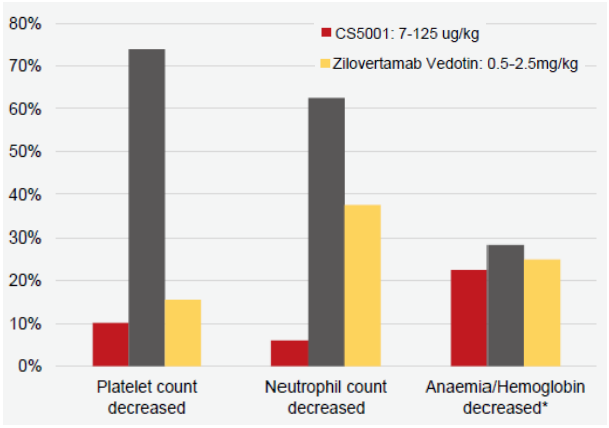
자료: Parkinson's Disea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LCB14 글로벌 임상 1상 디자인. Cohort A가 엔허투 투여받은 환자군 대상이며 내성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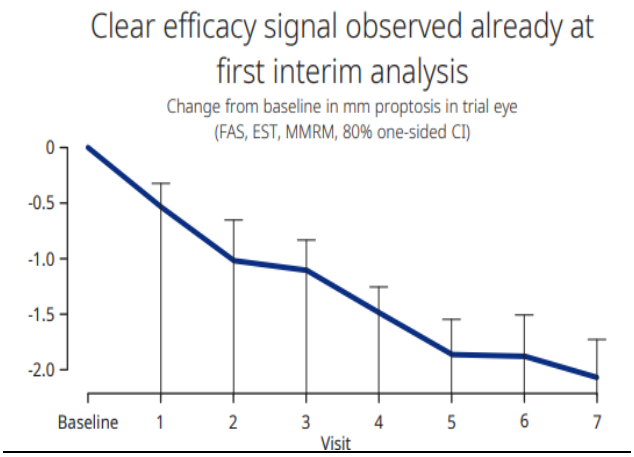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LCB71(CS5001) 임상 1상 부작용 데이터. 대조군(검정), 경쟁제품(노랑) 대비 부작용 발생 비율 낮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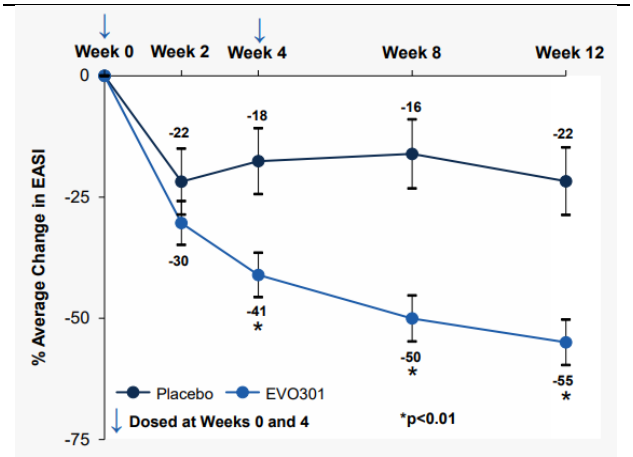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APB-A1(Lu AG22515) 임상 1b상 interim 데이터. 환자 안구 돌출이 2mm 이상 감소하는 효능 신호 확인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APB-R3 아토피피부염 대상 임상 2a상 데이터. 대조군 대비 투여 후 효능 있음을 확인



자료: 회사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12-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0.6%	9.4%	-